

주공, 양주가남 국민賃貸 390가구 공급

16평형 275가구, 19평형 115가구 입주는 2006년 4월예정



대한주택공사는 양주시 가남리 일대에 국민임대아파트 39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공사는 양주시 가남리 일대에 국민임대아파트 39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정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30년 임대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아파트는 16평형 275가구, 19평형 115가구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16평형이 900만원에 5만5,000~5만6,000원, 19평형이 1,100만원에 6만2,000원이다.

입주시기는 오는 2006년 4월로 예정돼 있다.

무주택 가구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46만9,590원) 이하인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에게 예정자는 가구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양주시 거주자가 1순위, 연천군·동두천·과주·고양·의정부·포천시 거주자가 2순위, 기타가 3순위로 26일 의정부 주택전시관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양주가남지구는 서울로부터 20km, 의정부로부터 10km 거리에 위치하고 경원선철도에 인접해 있으며 지방도 350호선과 3번국도 및 동부간선도로를 통하여 서울 및 주변지역으로의 접근이 양호하다. 분양문의 031-826-6182~4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양주경찰서, 하반기 방범공청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양주경찰서(서장 이동수)는 지난 25일 2층 소회의실에서 기계경비업체, 금융기관 방호담당,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과적인 방범활동과 현재 방범활동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토출하기 위한 하반기 방범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협력단체 등 다양한 지역대표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치안 만족도 향상을 강구하고 지역경찰의 안전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협력치안의 공감대

형성 및 겨울철 방범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수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주경찰서가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방범활동에 대한 협력단체 및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며 "앞으로 민·경간 긴밀한 협조와 함께 협력치안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직업분야가 다양한 여러분의 의견제시 및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1031@nate.com



양주경찰서는 지난 25일 2층 소회의실에서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과적인 방범활동과 현재 방범활동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토출하기 위한 하반기 방범공청회를 개최했다.

독수리떼 100여마리 몰려와 장관



연천 지역에 독수리 100여마리가 몰려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연천 지역에 독수리 100여마리가 몰려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몰려온 독수리떼는 평년 40~50마리의 2배 수준인 100여마리로 연천을 육산리, 현기리와 중면 일대 들녘에서 떼지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들 독수리떼는 고향이나 다름없는 강원 철원군보다 먼저 이곳을 찾는데다 낮 동안 수십마리가 하늘을 빙빙 도는 군무를 펼쳐 연

일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다.

연천을 주민들은 "독수리가 이 일대 양계장에서 버려진 닭의 사체를 두고 텃새인 까마귀, 까치와 닮은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면서 "주민들은 올해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독수리가 몰려와 길조라며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 관계자는 "대표적인 독수리 도래지인 철원에는 현재 30여마리의 독수리만이 관찰되고 있다"면서 "이동 거리가 수백km에 달하는 독수리들이 양계장이 많아 비교적 먹이가 풍부한 연천 지역에 잠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연기념물 243호인 독수리는 날개를 펼칠 경우 몸 길이가 3m에 달하며 지난해 철원평야에서 900여마리가 활동하는 것이 관찰됐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동두천 향토 야생화 도감' 발간

동두천문화원

동두천문화원(원장 홍경섭)이 동두천 전역에서 계절따라 피고지는 우리의 들꽃을 담은 '동두천 향토 야생화 도감'을 발간했다.

이번 도감은 조상이 물려준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보전하는 취지에서 지역주민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이번도감은 동두천중학교 교사

전동백씨가 동두천 지역의 소요산, 왕방산, 마차산, 천보산과 왕방, 장림, 쇠목계곡 등 지역 곳곳을 살피며 발견한 야생화들의 사진이 담겼다.

이번도감에는 153종의 야생화가 계절별로 분류돼 있으며 야생화의 이름, 속명, 개화시기, 용도, 촬영장소, 민간에 알려진 야생화 이야기를 함께 담았다.

백성주 기자 paek1031@nate.com

연천군 사회교육 수강생 모집

18세이상 여성 누구나 수강가능

연천군은 제1기 여성회관 여성사회교육 수강생 450명을 모집한다.

수강 과목은 한식조리와 미용사 자격증반, 생활요리, 영어회화, 서예, 댄스 스포츠, 제과 제빵 등 19개 과목으로 내년 1~5월 강의가 진행된다.

연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생활요리, 댄스 스포츠, 제과 제빵, 영어 회화 야근반은 남자도 수강할 수 있다.

연천군은 한식조리와 미용사 자격증반의 경우 장애인, 저소득 모자 가정에 우선권을 잘 예정이며 교육기간 유어를 맡길 수 있다. ☎(031)839-2263

조미정기자 cutelove7013@hanmail.net



'울고넘는 박달재' 악극양주서 공연

'천동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남아...' 흘러간 옛 가요 속에 애절한 사연이 펼쳐지는 악극 '울고넘는 박달재'가 내달 11일과 12일 양일간 양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는 코막연기의 대명사 최주봉씨를 비롯해 박인환, 김진태, 양재성씨의 30여명의 극단가교 단원들이 출연하여 공연될 예정이다.

노래와 춤, 희곡이 어우러지는 악극은 민족적 실용과 율분, 한을 형상화하기 위해 일제시대에 탄생해 6.25직후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장르로 특히 이번 무대에서 연주되는 '황혼의 블루스', '예수의 소아곡', '베시메무쵸', '비의령고' 등 20여곡의 노래는 중장년층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여진다.

양주시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백석농협, 공작농협에서 이달 17일부터 예매를 받고 있다. 공연문의는 양주시문화사연구소 031)820-5631로 문의하면 된다.

백성주 기자 paek1031@freechal.com

포도뉴스



제2회 장애인 쉼터 건립 '열린음악회'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동두천시지회(지회장 이용수)와 신흥교회 살로메 여성중창단(단장 장영미) 주최로 열린 제2회 장애인 쉼터 건립을 위한 열린음악회가 지난 20일 오후 7시 동두천시 민회관 공연장에서 시민들



제11회 시장기 생활체육 불링대회

동두천시 불링연합회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소요 불링장에서 제11회 시장기 불링대회를 선수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전, 단체전으로 경기를 실시해 단체전 1위 밤안개클럽, 2위 사



노인지도자대학 제21기 졸업식

경기북부 노인지도자 대학 제21기 졸업식이 지난 24일 오전 상패동 노인대학 강당에서 최용수 동두천시장을 유관기

관단체장과 졸업생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기 노인지도자 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동부동산

543-6160

상가 전문주택 상담환영

아파트 · 상가 · 공장용지 · 전원주택 전문 컨설팅

동부동산

- ▷ 고모리 공장 1570평, 10억(매매) 하천부지 400여평 사용가능. 건물 470평 (120평 2동, 60평 4동)
- ▷ 가산리 공장 385평, 3억, 동력 45Kw, 주택 25평, 공장 60평×2동, 가건물 50평(매매)
- ▷ 마전리 공장 임대, 1200평, 3000/300만, 건물 60평×4동, 가건물 300평, 동력 40Kw
- ▷ 송우리 준주거 용지 평당 1,100만
- ▷ 어룡리 43번 국도변 대지 2170평, 당200만, 상가건물 300평, 임대중
- ▷ 초가팔리 관리지역 750평×35만
- ▷ 무봉리 관리지역 800평×35만
- ▷ 송우주공분양권 다량 확보